

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현대 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2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법회 안내

- 도선사 (02)993-3161
-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중·고등법회 일 오후 12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 법륜사 (02)732-2710
- 르스남전전 및 인동법회 매월 1일 오전 10시
-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 심보사 (02)352-6404
- 수요 기초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 일요가람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청소년법회 일 오후 1시30분
- 보문사 (02)928-3797
-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동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 법회 매월 18일(음) 관음 법회 매월 24일(음)
- 광명선원 (02)584-1108
- 월운스님 초청법회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 거사법회 매월 첫째 월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청년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전통사찰음식 요리강좌 매월 둘째 주 일 오전 11시
- 보달 장안사 (0342)703-7766
- 가족법회 일 오전 10시30분 거사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교양대학 금 오후 1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 남양주 불선사 (0346)88-1958
- 신도회 매월 초하루·보름(음) 거사회 매월 둘째·넷째 일
-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교양대학 매주 목 오전 11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요일 7시
- 김희 법원사 (0349)33-2969
- 신도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이 단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환경 관심도 너무 낮다

불경에는 가르침 풍성... 연구논문은 30여편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환경' 관련 연구가 보다 활기차게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을 불교학적 입장에서 학문의 연구 성과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불교와 환경의 유기적 관련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장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이같은 여론의 대두는 당연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내재된 환경 관련 의 사상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미진한 가운데 아직까지 석·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관련 연구가 정무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란 지적도 교계 일각에서는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속에서 불교학 학자들이 단편적으로 발표한 불교와 환경 관련 논문은 30여편에 머물고 있다. 이들 논문은 대개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환경문제와 관련된 불교사상을 비교하는 신에 머물고 있다. 이들 논문은 불교학에 대한 전공분야를 넘어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는 학자의 양성이 절실하다는 게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또 불교학과 환경학자의 공동연구를 통한 환경문제의 불교적 해결책 제시도 보편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무거우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학계의 일각에서는 환경문제 자체가 학문적 연구보다는 실천성을 요망하는 만큼 이론의 차이에 기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구의 경우에도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태·환경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법을 이룰 수 있는 사상적 공간은 학자들이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관련 학계 일각의 예기다.

이에 반해 환경운동을 이끄는 현장에서는 실천력을 독려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단단히 자리잡는다면 실천운동도 그만큼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 신앙성을 담보로 한 환경운동의 타당성을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발표해 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법륜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 지난 16일 중의회의원 8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총회의 바쁜을 잇는 조계종 제 11대 중앙종회기 개원했다.

제11대 중앙종회 출범

조계종 의장에 설정 부의장 일면·청화 스님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서 정우스님(구룡사주지)이 대표로 의임선서를 했다. 총무원장 탄성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지난 7개월간 개원봉사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따른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유관기관의 정족적인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중앙종회의원 8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서 정우스님(구룡사주지)이 대표로 의임선서를 했다. 총무원장 탄성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지난 7개월간 개원봉사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따른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유관기관의 정족적인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재경 기자)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하 정증스님은 석우스님이 대독한 교사를 통해 "새로운 종단을 구성, 종회를 출범하는 시발점에 있으니 장유의 서가 무리없이 지켜지고 승가의 본분 수행이 저질로 증명받는 발전된 모습의 종단구현, 말사불공의 희상이 전개된 전 승가의 대변인으로서의 순명성을 자력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11회 정기중앙종회기 조계종 총무원장서 1회에서 개회, 제11대 중의회의장으로 설정스님(전 수덕사주지)과 지하스님(총무원 부원장)이 임후보 해, 비밀 무기명투표로 설정스님이 선출됐다. (인터뷰 14면)

수석부의장에는 일면스님, 차석부의장에는 청화스님(영암사주지), 사무처장에는 원학스님이 임명됐다.

한편 각 부과위원장 선출에 들어가 총무원과위원장 정우, 교육부과위원장 송산, 포교부과위원장 지중, 사회문화위원장 명진, 재정부과위원장 영달, 호법부과위원장 정운, 법제부과위원장 정우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동대 문화예술대학원 설립

불교음악등 6과목 개설·국내최초

동국대학교(총장 민병천)가 지난 21일 국내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문화예술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될 문화예술대학원은 불교예술문화학, 연극영화학, 문예창작학과 등 3개학과에 불교미술, 불교음악, 문화재, 연극, 영화영상, 문예창작 등 6개 전공과목을 개설한다.

동국대측은 "신진국 문화영상사업의 국내유입과 LTR개발을 앞두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민족문화 계승발전시키고 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문화예술대학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대학원은 석사·연구사·관리자과정으로 운영되며 석사·연구사과정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리자과정은 불교예술인, 종경작가, 언론·문화·예술 및 유관단체 인원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불교예술 관련학과가 동국대에 설립된 것은 동국대가 불교종립대학으로 관련학과가 많고 오랜 전통과 연구성과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황, 불교 잘못 이해하고 있다 12면

운주사의 염원 그리는 강연균 화백 13면

목어

재벌그룹의 총수가 눈물을 흘렸다.

지난 15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안병와 전 한전사장의 뇌물사건 검찰공판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후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전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조금도 법을 어기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이행을 받고 명세한다"며 호느낌 재벌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재벌의 눈물

결을 부탁드립다." 이날 검찰은 김우중회장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에게는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했으면서도 일반 재가자들에게는 정당한

욕과 개인을 위해 돈을 번 것이 아니라...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 일할 것이 많으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관

노력으로 부(富)를 이루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부를 널리 베풀고 일러 주셨다. 사회의 공평에 회한하려는 뜻이다.

김희장은 개인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28년간 쉬지 않고 일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눈물'과 1년 6월의 구형은 어떤 합수관계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근심하고, 소유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카젯다

뉴-세피아 탄생!

이제 중형의 느낌으로 타십시오.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놀랄만큼 달라진 스타일, 대폭 강화된 안전시스템으로 — 뉴세피아 '95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뉴미연방안전기준(FMVSS)을 적용하여 무려 570여 가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스타일이 더욱 컸습니다.

- 움직이는 전면 스텝을 연출해 주는 **본넬라인과 후론트 범퍼**
- 국내최초로 인계음, 필비 램프가 내장된 **일체형 고경도 헤드램프**
- 볼륨감이 돋보이는 라운드 감각의 **리어 피니쉬와 리어 콤비램프**
- 여유롭고 편리한 드라이브를 도와주는 **일체형 대쉬보드**
-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도난방지 기능을 추가한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선택)**
- 새로운 디자인의 포터리 질감 타입의 **고성능 에어컨(선택)**

안전이 더욱 컸습니다.

- 충격에 대한 강도가 대폭 향상된 **직선일체형 T형 범퍼**
- 충돌시 1차 충격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한 **전면 관성**
- 알파식은 물론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한 **도어 임팩트**
- 사물 비유를 실험해 놓은 차체의 강성을 향상시킨 **고강력 강판**
- '95년부터 적용되는 **FMVSS** 최신 안전기준(54km/h 측면 충돌시 안전도)을 만족시킨 **특수 보강재, 시트하단 특수 프레임**

성능이 더욱 컸습니다.

- 2방향에서 연료를 분사, 가속 응답성을 향상시킨 **2스프레이인젝터**
- 최적의 연료량을 분사하여 고효율을 실현한 **다중 연료분사기**
- 엔진고정시 흡기 속의 내용을 알려주는 **저속 고점진기**
- 시침단의 소음차단 설계로 쾌적함을 주는 **NVH성능**
- 엔진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공회전 속도 자동제어** 기능
- 진동을 대폭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뉴형식 타이어**

NEW SEPIA

기아자동차